

## 문화전당 효과...광주 구도심 살아난다

### “완공전에 상권 잡아라” 의류·요식업체 임대 문의 쇄도 서울 투자자들 건물 잇따라 매입...부동산 경기도 꿈틀

광주 동구 충장로 상권을 비롯한 구도심 부동산 경기가 꿈틀대고 있다. 오는 2014년 완공 예정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앞서 주변 상권의 요충지를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의 부동산 매매와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입주 예정인 동구 화2지구 등 대규모 재개발단지도 구도심 부동산 경기를 들쭉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들의 움직임은 ‘서울발’로 시작했다. ‘눈치 빠른’ 수도권 투자자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화전당 건립 후 확대될 충장로 상권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이미 지난 1년 새 서울 투자자들이 충장로 인근에서 사들인 건물만 3~5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문화전당 뒤편 계획도로에 자리 잡은 모 건설사 건물과 충장로 3가의 5층 건물, 광산동 광주은행 인근 3층 건물 등이다.

매매와 더불어 임대 문의도 잇따르

고 있다. 충장로 사정에 밝은 한 공인중개사는 “문화전당 건립 전에 장기적 안목으로 상권을 선점하기 위한 의류기업과 요식업 프랜차이즈, 개인 투자자의 관련 문의가 최근 한달 평균 적게는 30건, 많게는 50건씩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투자자들도 상무지구와 수완지구에 몰렸던 투자심리를 충장로로 되돌리고 있다. 동구에 4곳이 넘는 유명 한식업체를 운영하는 한 투자자는 매년 중심상권의 건물을 매집하며 문화전당 완공 후를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매매가격 대비 기대수익률이 상무지구나 수완지구

에 비해 30% 이상 높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학동의 대규모 재개발단지는 구도심의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릴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당장 내년 초 800세대 규모가 입주하는 화2지구는 인근에 큰 유통상권이 없어 입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구도심 상권으로 유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공인중개사는 “옛 전남도청 이전 후 구도심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지속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빨라진 투자자들이 ‘시기가 됐다’고 판단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이 계속되면 문화전당 건립을 목전에 둔 2013년에는 부동산 경기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입동홍기자 exian@kwangju.co.kr



영광의 얼굴들 제38회 광일 보훈대상 시상식이 13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정부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과 강은태 광주시장, 안중현 광주지방 보훈청장, 보훈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수상자는 앞줄 왼쪽부터 김생현(공상 군경)씨, 강정례(전상 군경 부인)씨, 박순금(순직 군경 부인)씨, 노창영(전 물군경 아버지)씨, 이용주(무공수훈)씨 등 5명이다. > 관련기사 7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李대통령·손학규 대표 빠르면 이달중 영수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달 내에 성사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3일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이 고통 속에서 민생을 돌보라고 외치고 있다”며 “대통령과 무

민생을 걱정하는 건데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이날 오후 신임 인사차 손 대표를 예방한 김홍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이어 “내달 초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있으니 그 전에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혀 이달 내에 영수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입동홍기자 tuim@kwangju.co.kr

## 임상규 순천대총장 자살

### 순천 서면 선산 승용차서 숯불 피워놓고 숨져

### “너무 힘들고 지쳐” 유서 ‘함바 비리’ 연루 조사중

일명 ‘함바집 비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임상규(62) 순천대학교 총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6면>

13일 오전 8시10분께 순천시 서면 동산리 선산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에서 임상규 순천대 총장이 차량 조수석에 숯불을 피워 놓고 숨져있는 것을 사찰동생 임모(50)씨가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임씨는 경찰에서 “아침 일찍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갔으나 형님은 보이지 않고, ‘선산에 간다’는 메모만 식탁에 놓여있어 찾아가 봤는데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임 총장은 전날 밤 10시께 자택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해 선산으로 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발견 당시 임 총장은 차량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젖힌 채 비스듬하게 누



운 상태였으며, 뒷좌석에서는 ‘그동안 힘들고 지쳤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1매 분량의 유서가 편지봉투에 담긴 채 놓여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총장은 숯불이 타면서 흘러 나온 일산화탄소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와 관련, 최근 검찰의 조사를 받은 임 총장이 심리적 압박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밝히기로 했다.

한편 순천대는 임 총장의 영결식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순천대 체육관에서 갖기로 했다. 장례는 순천대학교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순천시내 성가톨릭 병원 장례식장, 장지는 순천시 서면 선영으로 정했다. /순천=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알림

## 2011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6월 18일(土)·19일(日) 오후 2시 광주 염주체육관

세계배구 강호들이 격돌하는 2011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한국 대 쿠바전이 오는 18일과 19일 광주에서 벌어집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쿠바와 함께 D조에 속한 한국 국가대표팀은 수원·인천 경기에 이어 홈 마지막 경기인 쿠바전을 광주에서 갖습니다. 한국팀은 광주출신 득점기예 김요한, 신에 주포 전광인, 세계최고 리베로 여오현선수가 포진해 쿠바와 프랑스를 격파하고 이탈리아와는 폴세트 접전을 벌이는 기염을 토했습니니다.

카리브해의 다크호스 쿠바팀은 지난해 월드리그 4위, 세계선수권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강팀으로, 신장 2m가 넘는 선수 8명이나 포진하고 있으며 윌프레도 베레로, 페르난도 라모스 등 센터진은 3m50cm대의 고공 스파이크로 무장했습니다.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주최 : FIVB(국제배구연맹)
- 주관 : 대한배구협회·광주시배구협회
- 후원 : 광주일보사·(주) e메디원·(주)나이스

光州日報社

### 제56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입상자 ▶ 13편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 2011년 7월 4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062)605-1112, 1063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한울스파

## 한울정

한울정의 특징

- 1인 1실, 1:1 케어
- 한방 화장품 한울 정품 사용
- 금수저&은수저 마사지
- 아모레퍼시픽 뷰티포인트 사용 및 5% 적립 가능

아리따움 총장직영점 2층에 있습니다. ◆ 예약문의 : 062)432-3030

## 피부의 최적 균형을 이루는 쉼터

한울 停은..

한국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한방’과 피부의 조화와 균형 상태인 ‘울려’를 구현하기 위한 한울 제품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구현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한방 스파 SHOP